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보 가입

고용부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건보료 50%까지 지원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부실 숙소·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돼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횡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 변경 횡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는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급어기에 권고되지만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더불어 6개월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 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지사는 지난 2일 방콕 칼튼호텔에서 태국 내 가장 영향력이 있는 Vachamon 등 4대 신선 빅바이어 CEO와 함께 '한국산 둔갑' 짝퉁농산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태국 내 '한국산 둔갑' 중국산 농산물 근절 나섰다

aT, Vachamon 등 4대 신선 빅바이어 CEO와 함께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한국산 둔갑' 중국산 농산물의 근절을 위해 아세안지역의 수출유망국가이자 선도국인 태국에서 다양한 마케팅활동에 나섰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배 등 신선농산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자 '한국배', '신교배' 등 한글로 표기한 중국산 과일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이른바 '짝퉁농산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지 소비자의 오인구매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T 방콕지사는 지난 2일 방콕 칼튼호텔에서 태국 내 가장 영향력이 있는 Vachamon 등 4대

신선 빅바이어 CEO와 함께 '한국산 둔갑' 짝퉁농산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T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최대 규모의 바이어 4개사와 함께 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산 원산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고품질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 현지 유통체계의 짝퉁농산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aT는 현지 주력 유통매장인 Lotus's와 마케팅 협업으로 3월 1일부터 한국산 농산물 판촉전을 진행하며, 소비자 대상의 원산지 확인 캠페인

'Check, Product of KOREA'를 전개하고 있다. 주요 매대에 태국기 부착 또는 품목별 QR코드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하반기 출원 등록 완료를 목표로 태국 현지 로펌과 연계하여 딸기, 배 등 공동 브랜드 상표권 현지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aT는 태국에서 신선 농산물뿐 아니라 모든 한국산 농식품의 현지 판촉과 홍보행사 시 현지 유틸리티, 대형유통업체 등과 함께 한국산 오인 표기 짝퉁농산물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최대 18 학점 인정에 실무 능력 배양까지'

국민연금, 도내 대학생 대상 'IT분야 직무체험형 현장실습' 운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전북대, 우석대와 협력해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생 IT 학점연계 직무체험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3월부터 7월(5개월)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공단 IT업무 체험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과 진로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생은 본인 전공 관련 부서

에서 전담멘토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 모바일, 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를 체험하게 되며, 공단의 IT 교육 및 세미나 참여 등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가진다.

그간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0년도 까지 3회에 걸쳐 총 18명의 전북지역 대학 IT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했으며,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생에는 총 6명의 대학생이 참여

하게 된다.

현장실습을 수료한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15~18학점을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김용진 이사장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IT 학점연계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을 운영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여권 들고 떠나볼까?... 국립공원 여권 무료 배부

한라산·덕유산 포함 22곳 탐방 정보 담아  
인증시 10곳·22곳 단위로 메달·인증서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선종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공원 여권'을 제1회 국립공원의 날(3월 3일)에 맞춰 전국 국립공원원에서 2만부를 추가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21개 공원을 대상으로 여권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만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600명이 완주했다.

3월부터는 국립공원공단과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가 주관하고 한라산을 포함한 전국 22곳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여권 여행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덕유산국립공원도 포함된다.

탐방객은 공원별 탐방지원센터, 탐

방안내소, 생태탐방원, 체험학습관 등 109개 시설에서 해당 국립공원의 방문을 인증하는 도장을 '국립공원 여권'에 찍을 수 있다.

도장은 각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문화재·경관 등을 새겨 탐방객이 인증 도장을 찍고 국립공원의 역사·문화 등을 함께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지리산은 반달곰, 한라산은 백담담, 경주는 석가탑과 다보탑, 태백산은 천제단, 변산반도는 채석강, 다도해해상은 바다와 상생이를 도장에 표현했다.

도장을 찍고 인증을 받으면, 인증도장 10개 이상부터 메달, 패치, 인증서로 구성된 기념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10곳, 22곳 방문 인증 시 각각 기념품이 제공되며, 기념품 신청은 가까운 탐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공단은 국립공원 인근 275개의 지역상점과 협약해 여권 소지자에게 품목별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권 수령, 도장 찍는 장소, 인증 방법, 지역상점 등 '국립공원 여권 여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 또는 전화(033-769-95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희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올해는 한라산을 포함한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여권 여행이 운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통해 편안하고 재밌게 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기자

## 지방은행 최초 'ESG인증' 최고등급

전북은행, 700억원 규모 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방은행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700억원 규모의 원화 ESG채권을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ESG채권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등에 투자된다.

특히 이번 발행된 채권은 지방은행 최초로 ESG인증등급제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 채권 가운데 최고 등급인 'STBI' 등급을 받아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은행은 이번 ESG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재난시정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내부 ESG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인증 자격기관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3일 금융교육과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에 앞장선 대학생봉사단 'N돌핀' 9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을 신고'

농협은행 전북본부, 대학생봉사단 'N돌핀' 발대식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3일 금융교육과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에 앞장선 대학생봉사단 'N돌핀' 9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동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비대면으로 자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

N돌핀이란 농협은행의 N자와 역동적인 돌고래(돌핀)의 합성어로 농협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을 실어 나르는 엔드러핀 역할을 하자는 의미의 대학생 봉사단으로 전북지역은 이번 9기에 6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김윤상 기자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 청소년 금융교육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농협은행은 활동 우수학생에게 은행장 표창 및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1회),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교육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 주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남원 농어촌공, 농지은행사업비 91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가 관내 농업인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1년도 농지은행사업비 91억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남원지사의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2030세대와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

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매매 및 임대차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8억5천만원 ▲과원규모화사업 3억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50억원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24억원 ▲농지연금사업 2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3억3천만원 ▲농지임대수탁사업 131ha 등이다.

이충호 지사장은 "관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주 기자

## 전북농기원, 화훼 육성 신품종 농가 현장 공급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화, 장미, 스타티스, 안개꽃 신품종들이 농가 현장에 보급, 실증 재배되어 침체되어 있는 도내 화훼 소비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 따르면 올해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고창 등 9개 시·군 41농가에 전북도에서 육성한 화훼 신품종 종묘 39만주(약 2.4ha 재배 분량)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화, 장미는 전주, 익산, 정읍, 완주

등 7개 시군에 보급되며, 안개꽃은 익산, 정읍, 남원, 무주에서 연중 생산 출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스타티스는 여름철엔 고품질 무주, 준고랭지 남원(운봉) 및 겨울철엔 평야지 익산, 고창 등에 공급되어 연중 생산, 출하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 공급하는 스탠다드 국화 '백옥'과 스프레이 장미 '피치광광'의 경우 시장 선호도가 매우 높아 농가 소득증대에 일조하고 있으며 농가재배 현장에서 확대 보급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민 기자